

광주일보-시산맥 ‘제10회 동주문학상’ 시상식

해외수상자 등 관계자 300여명 참석
본상 김종미 시인 상금 1000만원

광주일보(회장 김여송)와 계간 ‘시산맥’ (대표 문정영)이 공동 주관하는 ‘제10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9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낙원상가 5층 앤피오피아홀에서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김필영 시산맥시회 회장, 시산맥회원, 문단 및 문예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동주문학상은 윤동주 시인 80주기를 맞아 열렸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의미가 깊다. 국내 안팎에서 80주기와 관련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개최돼 윤동주의 삶과 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박민서 시인(시산맥 편집장 겸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동주문학상 시상식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수상자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전 행사로 먼저 윤동주 시인에 대한 헌다·헌화애 이어 최문자 시인의 축사가 진행됐다.

박형준 동주문학상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계절의 끝자락에서 열리는 동주문학상 시상식은 윤동주 시인의 정신, 품위 등을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김종미 시인의 수상작은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통찰하는 힘이 있었다. 해외 수상자들의 작품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거주하는 지역의 감성을 시에 잘 녹여냈다”고 평했다.

시상식에서는 본상 수상자 김종미 시인에게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졌다. 수상작은 ‘밤, 이렇게 사는 거야’ 외 4편.

김종미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밀란쿰데라의 ‘시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며 “시인이 되고 끝까지 가는 과정에 동주문학상 수상이라는 꽃을 만났는데, 끝까지 가보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김 시인은 시집 ‘새로운 취미’, ‘가만히 먹던 밥을 버리네’를 펴냈으며 제1회 시산맥작품상을 수상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한



제10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낙원상가 5층 앤피오피아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산맥 문정영 대표, 동주문학상 김종미 시인, 해외작가상 고광이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정찬열 시인, 해외신인상 김은국 시인, 광주일보 박성천 문화부장.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공모제인 동주해외작가상 수상자인 고광이 시인에게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고 시인은 “시를 쓸 때부터 윤동주 시인은 가슴에 품어온 이름이라 이번 수상은 더욱 가슴 벅차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재미 시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광이 시인의 ‘스콜피온피시(Scorpionfish)’에 관한 명상’ 외 4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주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자인 전남 영암 출신인 정찬열 시인에게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주어졌다. 정 시인은 “윤동주 이름을 딴 특별상을 받는다는 자체가 감개무량하다”고 언급했다. 정 시인은 광주 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미주중앙일보 신춘문에 시로 등단했다.

동주해외신인상 수상자 김은국 시인에게도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김 시인은 “이민자로 살며 내 안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 시였다”며 “미국 사회의 민낯을 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템플 유니버시티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워싱턴 문인회 시, 수필로 각각 등단했다.

이날 동주문학상 시상식과 겸해 제4회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 시상식도 열렸다. 안명옥, 김겨리 시인이 각각 300만원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이에 앞서 제6회 시산맥창작기금 수여자인 강수 시인, 이만영 시인에게 김필영 시회회장이 선물을 증정했으며 시산맥 등단자 회장단 공로패 증정식에서는 권기만 회장, 양현주 총무가 상패를 받았다.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김지연 학생에게 박송 시인이 후원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문정영 동주문학상 대표는 “제1회 시상식을 거행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회째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광주일보와 함께 윤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늘과 강, 시간의 대화’

김순애 개인전, 내년 1월 1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시간의 흐름을 가장 명징하게 알 수 있는 대상은 자연이다. 해가 뜨고 지고, 낮밤이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의 엄정한 질서에 따른다. 인간의 생로병사의 통과의례는 결국 자연의 시간으로 수렴된다.

자연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김순애 작가의 ‘하늘과 강, 시간의 대화’ 전. 영산강문화관(관장 신성규)에서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풍경이 주요 모티프다.

‘하늘과 강, 시간의 대화’라는 주제가 말해 주듯 시간의 대화는 곧 자연의 대화를 상징한다. 자연의 시간을 구현함으로써 작가는 자연과의 물아일체를 느끼는 듯 하다.

‘타오르는 영산강’은 S자 곡선으로 휘돌아가는 영산강의 지형을 담았다. 노을이 지는 무렵 서서히 어둠에 물들어가느 영산강은 보는 이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말없이 흘러온 영산강 물결은 남도인들의 심성을 닮아 푸근하면서도 정겹기 그지없다.

‘지나간 자리’는 어느 시골의 냇가를 조형화한 작품이다. 남도의 산하를 닮은 유순한 풍경을 보노라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다. 한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듯 하늘에는 물결구름과 붉은 햇살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다.



‘지나간 자리’

서양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아트디렉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미술대전 추천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림책 ‘하늘별’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해 마지막 수놓을 ‘윈터 랩소디’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12일 전남대 민주마루

깊어지는 겨울의 공기 속에서 감성적인 러시아의 선율이 파도처럼 위로와 장대한 드라마를 전한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제40회 정기연주회 ‘Winter Rhapsody’를 선보인다. 올해의 마지막 정기 무대로 차가운 계절과 어울리는 감성적 깊이를 중심에 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무대는 두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와 스크랴빈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지휘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정한결이 맡는다. 그는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하며 세련된 해석과 균형감 있는 음악적 접근으로 주목받아 온 젊은 지휘자다. 독일 국제 지휘자콩쿠르 입상과 유럽 ‘지휘자 포럼’ 선발로 경력을 쌓았으며, 국립심포니와 KBS 교향악단 등 주요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협연에는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오른다. 롱-티보, 쾨 엘리자베스, 루빈스타인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잇달아 두각을 드러내며 국제적 명성을 이어온 연주자로 현재 성신여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협연할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라흐마니노프가 개인적 침체를 견디고 다시 시작하던 시기에 완성한 작품이다. 부드럽게 흐르는 서정성과 대규모 오케스트레이션의 힘이 교차하며 절망을 통과한 후의 환희와 회복을 음악으로 빚어낸다. 라쉬코프스키는 곡의 서사



지휘자 정한결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적 긴장과 폭발력을 폭넓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반부에는 스크랴빈의 ‘교향곡 2번’이 이어진다. 장대한 5악장 구성의 이 작품은 스크랴빈 특유의 신비주의적 색채와 관현악의 극적인 대비가 돋보인다. 어둠에서 빛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두드러져,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간으로 향하는 정서와도 겹쳐진다. 특히 마지막 악장의 장엄한 코랄풍 선율은 고조되는 에너지 속에서 각 악기의 색채가 응축돼 큰 울림을 만든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겨울이라는 순간이 품은 고요와 사색,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열정을 전하고자 하는 무대”라며 “연말의 시간을 음악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골목 걸으며 만나는 책·공간·사람의 온기

동구 ‘여행자의 집’ 서점 6곳 참여
도시형 인문 투어 ‘독립서점패스’

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시선이 멈추는 작은 서점이 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과 책방지기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 무심히 책등을 훑다 만나는 뜻밖의 한 권의 책. 독립서점은 도시의 골목을 지키며 섬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동구는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을 중심으로 지역 독립서점과 연계한 인문문화 프로그램 ‘동구 독립서점패스’를 운영한다. 지난 20일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동네 책방이 추천한 도서를 따라 골목을 걸으며 책·공간·사람을 이어주는 도시형 인문 투어다.

동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독립서점이 지역이자 ‘인문도시’를 표방해 온 곳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소규모 서점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책을 매개로 한 문화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충장로5가에 위치한 독립서점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의 내부 풍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여행자와 시민이 독립서점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 서점은 동명동·충장동·대의동 일대의 ‘동명 1974’, ‘동명책방 꽃이피다’, ‘책과생활’, ‘예지책방’, ‘소년의서’,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등 총 6곳이다.

참여자는 여행자의집에서 원하는 서점의 ‘책방 쿠폰’을 수령해 방문하면 책 구매 시 1만 원의 도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점별 25명, 총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각 서점에서는 책방지기가 직접 고른 ‘연말 추천도서’ 12권도 만나볼 수 있어 더 풍성한 문

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행자 플랫폼 ‘여행자의집(ZIP)’은 그동안 골목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여 왔다. 글짓기 프로그램 ‘여행자의 집단지성’, 독립서점 네트워크 ‘독립서점패스’ 등 인문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은주 동구 지속가능관광과장은 “인문도시 동구에서 ‘독립서점패스’는 골목 상권과 문화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